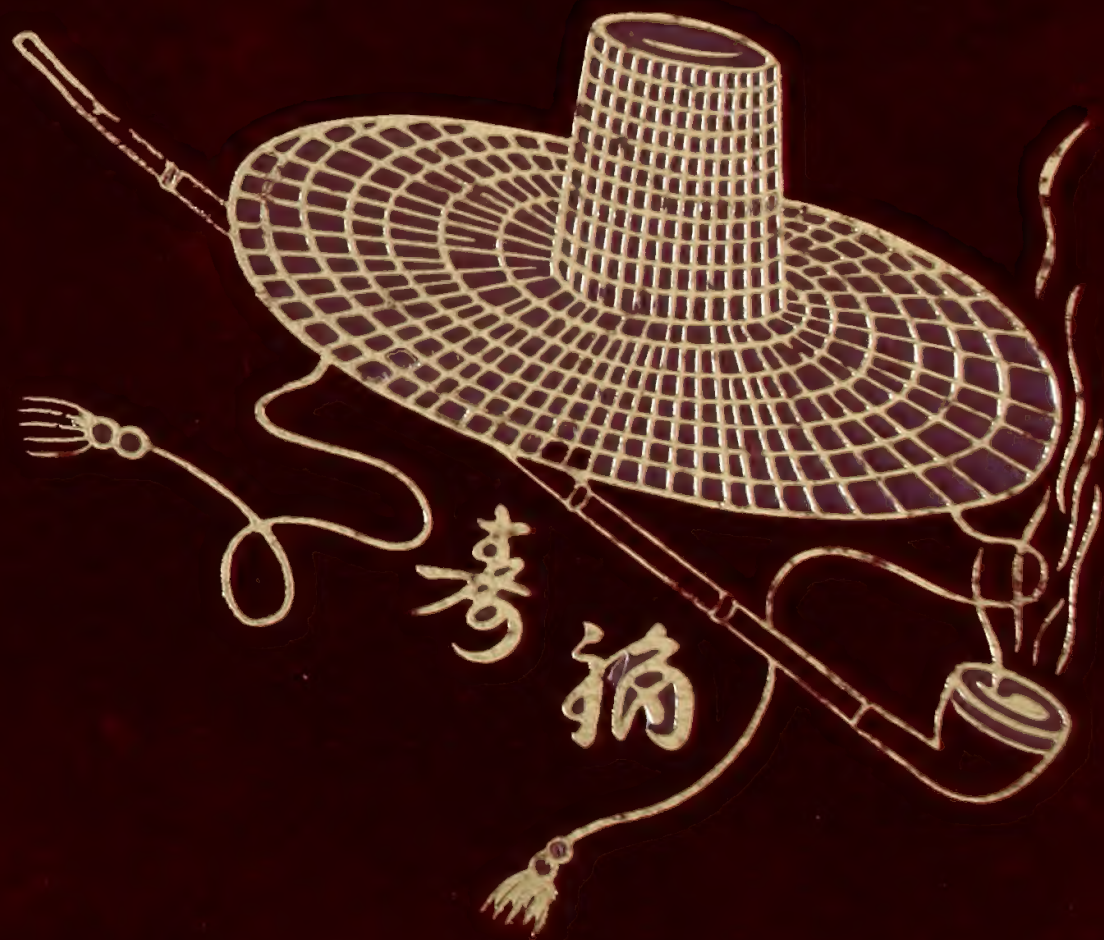


福壽祿後



따 어 리 본 부 장 님 과 마 삼 략 박 사 님 께

“ 우리 한국 사람이신 마삼락박사님과 마애인사모님을
미국에서 대리고 가시니 정말 신성하고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고향을 잃어버린 평양살항민이신데!.....”

그동안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마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며 일생을 한국을 위하여 사시고 한국의 교회와
복음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별히 우리 청도연성성경구장부
운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우려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사 성경구장부사업을 하신 것에 대하여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수권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마디 말, 박사님과 본부장님이 지켜
주셔야 할 한 마디 말은

“ 한국이 본국이거 일년에 두 세 번씩 자주
다녀오셔야 한다.” 는 말입니다.

평양의 하나님께서 본부장님과 마 박사님과 그리고 은가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1981년 8월

대한 청도연성성경구장부 본부 총무 정재근 드림.

